

1. '빨리빨리' 문화를 위한 방문포장 시스템 (테이크아웃의 편리성)

- ✓ 점심 뭘먹지, 저녁 뭘먹지 → 무작위 Category를 제공하여 미리 어플리케이션으로 큰 틀 결정, 대기 상태 (식사 예정시간 데이터를 수집, 사용자 데이터가 모이면 적절한 시간대에 알림 제공, 항상 오전 8시에 커피를 사서 출근하는 데이터가 모인다면, 7시에 알림)
- ✓ 식사 예정시간 30분~1시간 전 → 메뉴 결정 및 방문시간 결정, 여권을 발급받는 등의 일회성 행위라면 적절 선택 가능
- ✓ 서버에 데이터 수집/ 위치정보를 사업자 또는 관공서에 일시적 제공(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음식 및 기타 문서등 준비시간 예측 / 공급자 측이 바쁘면 사업자 또는 관공서 측에서 미리 알리는 기능도 추가.
- ✓ 범용성이 높음. 관공서, 음식점, 기타 사람이 붐벼서 따로 예약이 필요한 공간 등 모두 적용시킬 수 있음.
- ✓ 단순히 편의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사람들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한국데이터진흥원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음. 또한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의 가치가 높음.

2. 스마트 빌딩 스마트키(디지털키) 시스템

- ✓ 현재는 보안이 중요한 회사나 사업장인 경우 ADT캡스나 자체 보안망을 목걸이 태그키를 활용하여 직접 태그하는 방식으로 보안 시스템이 널리 자리잡고 있음.
- ✓ 근거리 안테나 통신기술을 이용한다면, 현재 자동차에서 쓰이는 스마트키 기술을 건축물 및 공간에도 활용 가능. 키와 공간만 존재한다면, 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Access 여부를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
- ✓ 유사시에는 수동 패스워드로 출입이 가능해야 함. 공간 접근 제한 무선 통신기술은 그것의 신뢰도가 생명이므로 고도의 거리 정확도와 높은 신뢰도가 필요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의 인식률.
- ✓ 만약 한 건축물에만 적용되지 않고 여러 건축물들의 클러스터에 적용되고, 회사같은 비공개 건축물이 아닌 일반 상가와 같은 공개 건축물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GUEST 권한을 부여하고, 서버에 이동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

권을 분석할 수 있음. 소위 '목이 좋다'는 상권이 데이터로 분석이 된다면, 이 데이터 또한 판매를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 건물주들은 가치를 높게 판단하여 서비스를 활용할 것임.

✓ 일반적인 소상공인 상가에 적용시킨다면, 외부인이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이 가능. 게스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음. 그로 인해 입점주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